



책을 통한 '소통' 과 '지적 담론' 의 한마당

서울와우북페스티벌 기획한
이채관 집행위원장
양지로 나온 출판사,
독자와 대중문화예술을 만나다

지난 9월 30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나흘간 홍대 앞 주차장 골목과 출판사 사옥, 카페, 클럽, 전시장, 놀이마당 등에서 한국출판인회의가 주최하는 서울와우북페스티벌(조직위원장 김혜경)이라는 이름의 '책 잔치'가 열리고 있다. 홍대 인근의 80여 개 출판사뿐만 아니라 홍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기획에 참여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저자 사인회부터 낭독회, 강연, 전시회, 공연, 퍼포먼스, 중고책 장터, 각종 '책' 체험 등 책이 주인공인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 다발적으로 펼쳐졌다. 상품으로서가 아닌, 문화로서 책의 다양한 '끼리'를 향유할 수 있는 축제다. 제1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준비로 한창인 지난 9월 1일 이 축제를 기획한 이채관(37) 집행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출판에서 발견한 생산공간으로서의 홍대

홍대 부근에서 영국 에든버러페스티벌에 버금가는 책 축제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한 올해 초, 출판계 사람들은 조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출판인회의도 아니고, 몇몇 익숙한 출판사 대표의 이름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도무지 그 출처를 알 수 없었다. 더군다나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하러 온 이채관이란 사람은 출판계로서는 '초면'이었다. '업자 아니야?'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다.

사실 업자가 아닌 것은 아니었다. 홍익대를 졸업한 이 대표는 런던대학교에서 컬처스터디스(문화연구)를 공부하고 청년 문화를 주제로 학위논문을 쓰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시월네트워크'라는 기획사를 차렸다. 처음엔 '일상의 예술화'를 모토로 공익적 성격의 축제를 기획하지는 게 목적이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은 해외의 대형 전시회를 기획유치하고 지방축제를 컨설팅하는 기획사로 성격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인디북에서 주최한 '살아 있는 톨스토이를 만나다-톨스토이전'을 기획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자라고 꿈을 꾸지 말란 법은 없었다.

“마포구에 있는 출판사만 1,600여 개나 됩니다. 그 중에서 나름대로 꾸준히 책을 내는 출판사도 160여 개나 되구요. 하지만 홍대부근에 이처럼 많은 출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클럽, 문화기획자, 예술인 등 홍대 주변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4년 전이었다. 모든 문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책의 생산기지(?)가 홍대에 있다는 사실에 이 대표는 가슴이 뛰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놀이공간으로만 인식되어온 홍대가 실은 한국의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내는 출판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동시에 이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꿈꿔왔던 ‘참여형, 네트워크형, 도서공동체형’이라는 새로운 축제 모델을 책 축제를 통해 실현시킬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영국 유학시절 봤던 에든버러페스티벌이 자연스럽게 홍대와 중첩됐다.

“책은 모든 예술가들에게 원천적 상상력을 제공합니다. 출판은 내용뿐만 아니라 외형에서도 일러스트, 디자인, 기획, 제본 등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서로의 반쪽을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셈입니다.”

참여형, 네트워크형, 도서공동체형 축제의 가능성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문화를 ‘관광수입 극대화’라는 도구로 인식하는 기존의 지역축제와는 몇 가지 점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먼저 확보된 예산이 고작 7,7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니다. 이 집행위원장은 틈만 나면 북페스티벌을 이야기하고 다녔지만 선뜻 후원하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역시 돈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데스크톱 폴더에 잠자고 있던 기획서를 꺼운 건 마포구청이었다. 문화체육과 장중환 과장의 도움이 컸다. 장 과장은 평소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나 기획자들을 직접 만나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몸과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 이 집행위원장은 장 과장을 만날 때마다 북페스티벌 얘기를 꺼냈고 결국 올초 마포구청으로부터 4,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또한 마포구청은 서울시에 이 축제를 마포구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신청해 3,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결국 7,700만 원이 저희가 가진 돈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축제에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액수죠. 하지만 이 돈으로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하면서 느낀 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저예산은 축제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방어막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홍대부근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첫 번째 이유 때문에 더 그랬다. 6명의 사무국 상근직원과 5명의 비상근 프로그래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100여 명 정도가 기획과 준비에 참여했다. 프로그래머는 15만 원의 푼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클럽연합회는 무료로 폐막파티를 맡아줬다. 이 외에도 홍대의 문화예술인들은 노동력이나 장소제공, 프로그램 협찬 등으로 십시일반 힘

을 보냈다. 물론 홍대가 출판계를 위해 무조건 ‘봉사’한 것은 아니다. 그들도 출판을 통해 얻고 싶은 게 분명히 있었다.

“홍대주변에 문화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슬과 춤이라는 놀이 공간으로 알려진 면이 있는데, 물론 ‘놀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놀이가 단지 ‘발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가 소통함으로써 진정성과 현실성 그리고 지적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랐던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그야말로 홍대부근에서만 할 수 있는 기획이라는 것이다. 홍대부근은 수많은 기획자들과 대중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으로 이미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비슷한 인프라를 가진 인사동이나 대학로 등 다른 문화공간이 철저히 상업적인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에 비해 홍대는 오히려 그러한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는 ‘독립’적인 색채가 강하다.

“출판인 스스로도 문화시대 홍대 앞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다양한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어했고 상품이 아닌 문화로서 책과 독자를 이어주고 싶은 욕망이 강했습니다. 결국 축제의 성공은 생산자, 수용자, 매개자 등 문화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문화적 지원과의 적극적 연계, 그리고 삶의 문화적 재구성을 위한 소통과 유희의 프로그램들의 조화에 달린 셈입니다.”

남은 과제는 예산 확보와 전폭적 출판계 지지

이 집행위원장은 이번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저예산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갖춘 것은 좋았지만 그러다보니 뻥튀기 보고도 비용이 없어 놓친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그래서 2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참여형, 네트워크형, 도서공동체형’이라는 기본적인 성격과 틀은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의 질을 위해 좀더 많은 후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다. 또 하나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1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을 계기로 ‘업자’라는 오해를 말끔히 씻고 전폭적인 출판계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결국 이 페스티벌의 핵심은 ‘책’이고, 가장 중요한 주체는 그 책을 생산해내는 출판인이기 때문이다.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휴일에 하다보니 출판종사자들에게 일거리를 하나 더 던져준 게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도 들고, 예산이 부족해 못한 게 너무 많아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출판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그리고 책을 만드는 현장을 보다 가깝게 느끼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누군가가 제공한 게 아니라 참여자 스스로 완성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